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 광주 병원發 집단 감염에 멘붕

“무관용 처벌” 방침 열흘도 안돼 중형 병원서 12명 집단 감염
“최후 보루인데” 대학병원·요양병원이어 중형병원까지 뚫려
‘롤리코스터 확진’ 광주·전남 누적 2000명…올해 300명 돌파

방역 당국이 노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최고 단계의 방역과 무관용 처벌 방침을 밝힌 지 열흘도 안돼 이번엔 광주지역 중형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멘붕에 빠졌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크게 꺾인 가운데 병원 종사자와 환자까지 무더기 확진돼 지역민들이 불안감과 함께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4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초 광주·전남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10여 건에 이른다.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으로 130여 명에 이르고, 호남권 거점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관련도 60여 명에 달했다.

광주 북구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요양원 내 35명을 비롯해 사우나, 가족과 지인 n차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르고,

동구 아가페실버센터와 북구 한울요양원 발(發) 확진자도 각각 8명과 12명에 이른다.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광주 기독병원과 동구 모 종합병원에서도 확진자 행렬이 한동안 지속됐다.

이들 의료시설 대부분은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 출·퇴근 종사자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드러났거나 추정되고 있고, 감염 직후 위험도 조사 등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와 전원(傳院)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 당국은 최고 단계의 방역과 함께 무관용 처벌 원칙을 수차례 공식화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4일 “요양시설의 경우 특성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과 종사자들의 직업의식이 요구된다”면서 “99.9%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0.1%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하고, 명백한 고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개 자치구 등) 자치단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주 처벌과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배제,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초강력 대응책이 발표된 지 9일 만에 이번엔 광주 도심의 한 중형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다.

간호조무사와 가족 등 2명이 잇따라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종사자·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명(광주 1395~1401번, 1404~1406번)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이 중 7명은 환자, 4명은 간호조무사, 1명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다.

방역 당국은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들을 잠정 폐쇄된 5~6층 병실에 격리 조치했다. 또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은 내과, 한방내과 등 9개 진료과와 69병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으로 의사를 비롯한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 병동인 5~6층에는 2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중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리 광주는 의료시설 무더기 확진으로 시민 불안감과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일일 확진자만 놓고 보면 광주는 30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을 빼고 가장 많다. 인구 1만명 당 확진률은 가장 높다.

연말연시 의료시설 확진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누적 확진자는 2024명으로 1년 만에 2000명을 넘어섰고, 올 들어서도 354명(해외

유입 9명 포함)이 확진됐다. 전체 확진자 중 지역감염자는 92%에 달한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시설 면회 전면 금지 등 고강도 대책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데 이어 또 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와 당혹스럽다”며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의 방역의식과 시스템을 다시금 바짝 조일 때”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민심 잡자’ 대권 잠룡들 속속 여권 심장부로

설을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이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당의 핵심 지지기반 지역의 명절 방문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광주시와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



지사는 29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광주시가 개최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과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품 구축 사업’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용섭 광주시장도 ‘인공지능 업무협약’을 위해 경기도정을 방문한 것에 대

한 답방 성격으로 이 지사는 이 시장과 면담하고 광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착공식이 미뤄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이재명 29일 인공지능 협약식·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이낙연 설 전 방문...19일 최측근 49재 참석 관측도
‘차기 대선 도전’ 박용진·이광재도 광주 방문 예정**

이 지사측 관계자는 “광주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국회의원 간담회나 1박 여부 등은 유동적이다”면서 “이번 방문은 그동안 지지해주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과 소통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설 전에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연초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지역민의 냉랭한 반응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특보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 대표가 설 명절 전에 광주·전남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지역 민심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

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지역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최측근이었던 이경호 전 당대표 부실장의 49재가 19일이어서 이 날에 맞춰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실장은 무등산 자락 문빈정사에 안치돼 있다.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전복 출신의 박용진 의원도 2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박 의원은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청년들과 소통한다. 21일에는 광주MBC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이광재 의원도 28일 KBC 토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다.

김미희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